

한국 저출산(생) 현상의 이해를 위한 심층인터뷰 조사 연구 결과와 함의*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

김인춘 ■ 연세대학교***

김중순 ■ 연세대학교****

최정원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여러 요인과 맥락은 매우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현상의 깊은 저변과 광범위한 근본적 배경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20~40대 여성 및 남성 50명에 대한 개별 대면 심층인터뷰 조사를 통해 저출생 현상을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수의 공통된 서사 및 답론은 1) 개인의 자유와 개인적 삶 중시 - 자유로운 삶과 혼자만의 삶 선호, 2) 동거가족·비혼출산에 대한 지지와 높은 수용성 - 출생 및 가족의 다양성 보장해야, 3)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산의 피로감/ 결혼출산 규범의 약화/ 사라진 결혼출산 압력, 4) 아이 돌봄서비스 부족, 높은

*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이 2020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프로젝트” 중 별도의 심층인터뷰 조사 연구 결과의 일부로 작성된 것이다. 본 심층인터뷰 조사 연구는 Carlyle Group의 김종윤(John J. Kim) 한국 대표가 미국 United Board(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UB)를 통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에 지원한 기부금으로 진행되었다. 김종윤 대표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 같은 연구로 비수도권 지역을 다룬 논문은 『동서연구』 제36권 4호(2024.12.20)에 게재될 예정이다.

*** 주저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E-mail: ickim95@yonsei.ac.kr)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겸 미국 테네시대학교(The University of Tennessee) 명예교수(E-mail: hajeo490@gmail.com)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E-mail: cjw@yonsei.ac.kr)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 - 둘째 포기, 5) 정부(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와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저자산 남성집단, 맞벌이 집단, 고학력 전문직 및 고임금 여성 집단, 20대 집단의 결혼출산 태도 등 다양한 범주별 사례 분석도 시도했다. 심층인터뷰의 1차 자료에 기반하여 서술되고 분석된 본 논문은 저출생 현상의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여러 층위의 문화적, 사회심리적 요소들에 대한 질적 해석을 통해 저출생과 다양한 인구 현상에 대한 이해의 근거와 대응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저출산(생) 현상, 대면 심층인터뷰, 질적 연구, 수도권, 2040세대, 결혼, 가족

I. 서 론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으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2024.6.19)를 주재하면서 현재의 저출생 추세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3대 핵심 대책을 제시하였다. ‘기업 규모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책임을 완성하며’,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등 주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지금까지와 달리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로 잘 시행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이 성과를 가져온다면 단순히 저출생¹⁾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분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

1) 본 논문에서는 통계수치(합계출산율), 공식발표 등 엄밀한 개념어가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여성)에 무게를 두는 ‘저출산’보다 가치중립적인 ‘저출생’ 용어 사용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인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고, 11세까지 공공 돌봄으로 여성의 육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며, 저렴하게 제공되는 주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더 평등하고 더 안전하고 다양성이 확대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저출생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전제조건이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예외적으로 매우 낮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시행하는 서비스 및 지원 중심의 일반적인 정책적 대응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구조적 성불평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노동시장 문제, 높은 사교육비, 장시간 노동, 사회적 무한경쟁, 정치와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은 현재와 같은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현금 및 제도적 지원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²⁾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등 평균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발전해 왔지만 주거, 소득, 고용 등 경제적 요인은 여전히 저출생의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강동수 외 2021; 최강식 외 2022; 최강식 외 2023).

따라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현상의 깊은 저변과 광범위한 근본적 배경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유교적 가족주의와 사회적 성규범, 압축적 근대화, 세속적 물질주의, 정치적 권위주의의 유산, 사회적 신뢰 부족, 가치관의 변화 등이 오랜 기간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쌓여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저출생 현상의 여러 요인과 맥락이 매우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 방식으로 개별 대면 심층(In-depth)인터뷰 조사의 1차 자료에 기반하여 저출생 현상을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넓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결혼, 가족, 출산 및 양육,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이다. 솔직한 대화와 자유로운 소통의 심층인터뷰 연구는 단순 설문조사에서는 얻기 어려운 정보와 생각, 느낌과 분위기, 다층적 배경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생활

2) 합계출산율이 1.09명을 기록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채택되었다.

하는 20~40대 여성 및 남성 50명에 대한 개별 대면 심층인터뷰 조사의 1차 자료에 기반하여 서술되고 분석된 본 논문은 저출생 현상의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여러 층위의 문화적, 사회심리적 요소들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자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의 여러 연구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대응과 극복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문화적 관점, 주관적·심리적 관점에서 진행된 본 심층인터뷰 조사는 저출생 현상에 대한 질적 해석을 통해 저출생과 다양한 인구 현상에 대한 이해의 근거와 대응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20~40대 50명(여성 27명, 남성 23명)과의 개별 대면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이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의 가치관, 결혼과 출생, 가족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대한 생각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여러 요인과 배경을 질적으로 분석, 이해하고, 정책·제도적으로 대응하거나 사회문화적으로 인식의 전환과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을 찾고자 했다. 수도권 지역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50명은 단순 인터뷰이(interviewee)라기 보다 본 연구에 자신의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심층인터뷰를 함께 진행한 ‘정보 제공자(informants)’이자 실질적인 연구 참여자라 할 수 있다. 반구조화 심층인터뷰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양성과 관심도, 신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인터뷰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비교적 긴 심층인터뷰 기간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보다 신중하게 선정할 수 있었고, 인터뷰를 더 여유 있고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1. 대면 심층인터뷰의 질적 연구 방법

인터뷰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고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가

지면서 상호 간에 라포(rapport)가 형성된 상태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자와 인터뷰 참여자들은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할 수 있었고, 개인적인(사적인) 것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이들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회적 인식과 기대를 갖는지, 어떤 사람들은 왜 결혼하거나 아이를 갖는지, 왜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갖지 않는지 등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으로 의미 있는 서사(narrative)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와 인터뷰 참여자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자료를 1차 자료로 하여 저출생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심층인터뷰 조사는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양적 자료 이면에 있는 저출생 및 인구 현상의 특성과 배경을 서사와 질적 담론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해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내부자(당사자)의 입장에서 인터뷰 참여자 당사자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여론(설문)조사와는 다르다. 심층인터뷰의 솔직한 대화와 교감을 통해 뜻밖의 놀라운 생각과 사실들,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심층인터뷰 조사의 중요한 관찰 내용의 하나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주관적, 심리적 차원에서 그들의 다양한 실제 경험, 사회문화적 맥락과 분위기,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지 에 대한 기대, 그들이 처한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감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김준순 2024; 최종렬 외 2018; Creswell & Poth 2024; Kim 1988; Kim 2000).

2023년 현재 수도권외의 인구는 2,601만 명(주민등록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 인구는 938만 명, 경기도는 1,363만 명(경기도 자체 집계로는 1,405만 명), 인천시는 300만여 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2023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시 0.55명, 인천시 0.69명³⁾, 경기도 0.77명⁴⁾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3)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서울과 가까운 부평구(0.67명, 2021년 기준)가 가장 낮고, 농촌지역인 강화군(1.17명), 옹진군(1.05명)은 높게 나타난다.

4) 경기도 내 합계출산율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22년 기준 부천시(0.7명), 구리시(0.73명), 수원·성남(0.76명) 등 서울과 접해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가장 낮고, 서울과 먼 연천군(1.05명), 평택시(1.03명)는 높게 나타난다. 반면, 서울과 가깝지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격차가 낮은 과천시(1.03명)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

전체 합계출산율 0.72명에 비해 서울시의 출산율은 매우 낮고, 인천도 낮으며, 경기도는 전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인 인구 비중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이 전체 출생아 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저출생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2030세대의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저출생이 우리나라 전체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통계청의 ‘우리나라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49.1%였던 수도권 거주 청년 비중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뒤 2020년엔 53.8%까지 늘어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황문선·박혜균 2024). 통계청 발표(2024.5.7)에 의하면, 2024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 비율은 19.33%인데 서울의 고령화 비율은 18.80%, 인천 16.94%, 경기 15.93%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수도권의 출산율이 낮아 고령화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을 하나의 단위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진행했다.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이 혼재해 있는 경기도는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에서, 인천은 부평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수도권을 하나로 본 가장 큰 이유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주거와 직장이 동일 시·도가 아닌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직장이 서울이지만 주거는 경기도인 사례가 가장 많았고, 반대의 사례도 여럿 있었다. 이에 인터뷰 참여자들을 주거를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직장을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직장(대학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는 서울 35명, 경기 10명, 인천 5명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이 직장인 35명 중 13명은 경기도 거주로 나타났다. 더구나 수도권의 20~40대 인구는 비교적 잦은 이사와 편리한 광역교통체계로 인해 같은 생활권·문화권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 참여자들 여러 명이 최근 서울 ↔ 경기 간 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이유는 수도권을 경제·사회적으로도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위, 서울의 ‘강남 3구’가 주거비가 가장 비싸고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의 일부 구들은 경기도의 일부 시·구들보다 주거비나 소득이 낮기도 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경제·사

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그 배경이 주목된다.

회·문화적으로 차등화하거나 분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60분~90분⁵⁾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인 비대면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화적·사회적·심리적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했다.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그 기준은 1) 본 연구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크고, 2) 고졸 이상의 학력과 경제활동, 학업, 구직 등 사회생활을 하며, 3) 20~40대의 여성 및 남성, 기혼, 미혼, 연령 등 인구학적 요소의 고려와 공무원 등 공공기관, 대학(원)생,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직종의 고려다. 의도적 표집으로 확보된 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조사는 단일사례 또는 복수사례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그것의 담론 및 의미구조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심층인터뷰 조사는 어떤 특정 변수뿐 아니라 어떻게 ‘과정’과 ‘맥락’이 형성된 것인지를 살펴보고, ‘해석’에 초점을 두는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50명의 심층인터뷰 사례는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서사로 각 사례가 함의하는 다층적인 맥락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질문지’와 ‘개방형 질문(open question)’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간단한 반구조화 질문지는 사전에 미리 알려주어 심층인터뷰 주제에 대한 이해를 쉽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질문지의 역할은 인터뷰 참여자들로 하여금 연구 내용과 인터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인터뷰는 질문지와 큰 상관없이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⁶⁾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질적 자료 중 내러티브나 인터뷰 인용문은 심층인터뷰 중 의미있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자료(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을 위해 그들의 답변과 담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로 정리했다. 또한 유의미한 의견을 그룹핑(grouping)하고, 그것의 쟁점과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석, 정리함과 함께 내러티브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5) 인터뷰 전후 같이 식사를 한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 2시간 이상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었다.

6)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지는 않았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외 어떤 목적으로든 유출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연구윤리에 충실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연구 결과의 공유도 가능성을 알렸다. 인터뷰 참여자들 중 추가적으로 심층인터뷰 참여 의향을 나타낸 사람들과 추가 심층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추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심층인터뷰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나 공통점, 경향성, 인사이트나 함의를 찾아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인만큼 수치는 단지 참고를 위한 것이며 통계적 유의미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 결과 역시 본 심층인터뷰 조사의 결과일 뿐 완전히 일반화하기 어렵고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음을 밝힌다.

2. 심층인터뷰 참여자 구성

지금의 20~40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세대로 수도권 인터뷰 참여자 50명은 모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남성 23명은 모두 경제활동이나 학업 중이었고, 여성 27명도 3명(2명은 육아 겸 재취업 준비 중, 1명은 퇴사 후 전업주부)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활동이나 학업 중이었다.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 모두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자와 인터뷰 참여자간 신뢰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 본인 또는 가구의 현재 소득, 주거 상황 등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거의 모두가 광의의 중간 계층(즉, 중하, 중중, 중상)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⁷⁾ 이 점 또한 수도권을 한 단위로 연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저출생 현상은 학력보다 소득 등 경제적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사회 인식, 기대수준 등과 더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결혼과 출산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⁸⁾ 다만, 박사급의 고학력자나 고소득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 등 다양한 범주의 사례들을 별도로 논의하면서 여러 맥락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에서와 같이 인터뷰 참여자들을 성별, 연령별, 혼인 여부, 자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연령별 구분은 평균 초혼 연령 아래의 경우는 ‘A’로,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의 경우는 ‘B’로 표기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7세, 여성은 31.45세이고, 이에 본 연구는 남성 34세, 여성 32세를 기준으로 연령 범주를 나누었다.⁹⁾ 여성

7) 경제적 요인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의 정확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조사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8) 우리나라에서는 학벌과 직업(또는 소득) 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학벌보다 직업 또는 소득을 독립변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우리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로 인해 연령 기준은 성별이나 혼인 여부와 같이 엄

인터뷰 참여자 27명 중 A 집단은 9명, B 집단은 18명이며, 27명 중 14명이 결혼했는데 이들은 모두 B 집단에 속한다. 결혼한 14명 중 8명은 자녀가 있고 6명은 자녀가 없다. 남성 인터뷰 참여자 23명 중 A 집단은 9명, B 집단은 14명이며, 23명 중 8명이 결혼했는데 이들은 모두 B 집단에 속한다. 결혼한 8명 중 6명은 자녀가 있고 2명은 자녀가 (아직) 없다.

<표 1> 인터뷰 참여자(50명) 정보

	여성 (27명)		남성 (23명)		합계
	20대-30대초 (A 집단)	30대중-40대 (B 집단)	20대-30대초 (A 집단)	30대중-40대 (B 집단)	
미비혼	9	4	9	6	28
기혼	0	14 (유자녀 8)	0	8 (유자녀 6)	22
합계	9	18	9	14	50

인터뷰 참여자 50명¹⁰⁾ 중 여성은 27명으로 의도적으로 여성을 더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적 시각과 담론을 더 살펴볼 수 있었다. 기혼 무자녀 여성 중 일부는 배우자가 자녀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갓기를 회피하거나 미루고 있음을 볼 때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의 인식과 가치관이 저출생 현상에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50명 중 기혼자는 22명(올해 9월, 11월 결혼 예정자 2명 포함), 미혼·비혼자는 28명이며, 기혼 22명 중 14명은 자녀가 있고 8명은 자녀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는 모두 자녀가 없어 서구와 달리 결혼해야 출산하는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혼과 출산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볼 때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출생 및 가족 구성의 다양성이 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격하게 구분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만 나이로 19세의 사례(2인)는 편의상 우리 나이의 20세로 간주하였다.

10) 50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Ⅲ.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분석

<표 2>를 보면, 여성 기혼 유자녀 8명 중 5명은 2자녀, 3명은 1자녀로 3자녀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1자녀를 가진 3명은 처음에는 2자녀를 생각했지만 자신의 커리어 때문에,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그리고 난임으로 각각 둘째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1자녀를 가진 남성 기혼 유자녀 4명 중 3명도 처음에는 2자녀를 생각했지만 육아 힘들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둘째를 포기했다고 한다.

〈표 2〉 기혼 유자녀와 자녀 수

기혼 유자녀 여성 (8명)		기혼 유자녀 남성 (6명)	
2자녀 (5명)	1자녀 (3명)	2자녀 (2명)	1자녀 (4명)
정부지원 많거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유연근로 등 여건 개선 시 셋째 고려 가능 (1)	경력 위해 (1) 일육아 병행 및 육아 어려움으로 둘째 포기 (1) 난임 (1)	셋째 고려 (0)	둘째 계획 중 (1) 육아 힘들고 경제적 부담 등 둘째 포기 (3)

<표 3>을 보면, 기혼 무자녀 여성 6명 중 2명은 자신의 성공과 커리어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고, 3명은 각각 아이 갖을 생각 없고 양육이 힘들어서, 만혼으로 출산 포기, 처음부터 아이를 생각하지 않은 적극적 무자녀주의로 나타났다. 1명은 9월 결혼식 후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기혼 무자녀 남성 1명은 부인의 경력 때문에 아이갖기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혼 무자녀 요인 및 태도

기혼 무자녀 여성 (6명)	기혼 무자녀 남성 (2명)
본인 경력/ 성공 위해 (2) 아이 생각 없고 양육 힘들어 (1) 만혼으로 포기 (1), 무자녀주의 (1) 9월 결혼식 후 아이 낳을 계획 (1)	배우자 경력단절 우려 (1) 11월 결혼식 후 아이 낳을 계획 (1)

<표 4>에서 보듯이, 인터뷰 참여자 50명 중 미혼·비혼은 28명(여성 13명, 남성 15명)으로 이 중 18명(여성 9명, 남성 9명)은 A 집단에 속하고, 10명은 평균 혼인 연령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집단 18명(여 9명, 남 9명) 중 5명(여 4명, 남 1명)은 결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B 집단 10명(여 4명, 남 6명) 중 8명(여 4명, 남 4명)이 결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4> 미혼·비혼 여성/남성의 결혼 태도 및 의사

		20대-30대초 (9명)	30대중-40대 (4명)
여성	결혼 긍정적	4명 (아이 계획) 1명 (아이 불확실)	-
	결혼 부정적	비혼주의 (1) 소극적 비혼 (3)	비혼주의 (2) 소극적 비혼 (2, 입양고려)
		20대-30대초 (9명)	30대중-40대 (6명)
남성	결혼 긍정적	8명 (아이계획 8)	2명 (아이계획 2)
	결혼 부정적	소극적 비혼 (1)	비혼주의 (or 동거 중) (3) 소극적 비혼 (1)

1. 다수의 공통적 서사 및 담론 분석

본 연구는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 관련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 또는 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했다. 현재 또는 향후 정부 저출생 정책의 영향을 받을 인터뷰 참여자들로부터 정책의 단순한 대상자(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 즉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이들이 생각하거나 기대 또는 요구 사항을 듣고자 했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들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라거나 “내 말을 꼭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혼인 또는 동거를 비롯한 가족 구성, 출생, 육아 등과 관련한 태도와 인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사회·경제적 요인, 정부 정책, 정치와 사회 인식, 개인적 상황 등 인터뷰 참여자들로부터 수집, 정리한 1차 자료에 따라 전체 인터뷰 참여자들의 공통된 생각과 사고의 패턴이 드러났다. 사실, 모든 인터뷰 사례는 독립적인 각각의 사례로 생각과 관점이 다양했지만 아래와 같이 인터뷰 참여자의 80% 이상이 보여준 공통된 서사와 담론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 다수는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공통된 태도와 의사를 보였다.

1) 개인의 자유와 개인적 삶 중시 - 자유로운 삶과 혼자만의 삶 선호

“혼자 사는 게 넘 편하고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취미나 즐길거리도 많고요.”(30대 후반 비혼 남성)

“싱글이 자유롭습니다. 연애도 할 수 있고, 뭐든 다 가능하니까요. 전통적인 결혼제도, 처가, 시가 모두 부담되니 결혼 안하는 거죠.”(30대초 비혼 남성)

“여성도 성공하고 싶고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결혼이나 육아는 부담이 되죠. 엄마도 저보고 너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해요.”(20대 후반 미혼 여성)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지면 여러 가지로 내 삶이 힘들어지게 되니까요. 내 삶과 생활패턴 포기하기 싫어요. 결혼하면 손해 볼 거 같네요.”(20대 후반 미혼 여성)

“요즘 2030은 정말 개인주의가 강해요. 오로지 자신의 기준으로 자유롭게 살려고 하죠. 좋은 현상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40대 기혼 2자녀 여성)

비혼이나 저출생의 가장 큰 요인은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고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우선하는 경향이라고 거의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이 말했다. 자신은 물론 친구나 주변 지인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일과 개인적 성취(성공), 취미나 즐거움을 우선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한 삶을 위해 비혼을 선택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주목할 것은 여성은 물론 남성도 결혼이나 출산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일부는 결혼했거나 자녀를 가졌고, 일부는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0대 인터뷰 참여자들은 2030세대의 개인적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비혼이나 무자녀 가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30세대는 간섭이나 개입을 싫어해 남의 배려나 호의조차 거부한다고 한다.

2) 동거가족·비혼출산에 대한 지지와 높은 수용성 - 출생 및 가족의 다양성 보장해야

“동거나 비혼 출산 문제 없죠, 본인의 자유고 선택인 걸요.”(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

“제도적으로 권리가 보장된다면 비혼출산, 비혼입양도 좋을 거 같아요.”(40대 미혼여성)

“저는 여친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여친이 원하면 동거출산도 할 거예요.”(30대초 비혼남성)

“결혼 전 1년 정도 동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20대 후반 미혼여성)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달리 자유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았다. 동거, 비혼출산에 대해서는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이라고 하였으며, 거의 모두가 지지하거나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 중 반 정도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결혼 초기의 이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거가 꼭 필요하다거나, 비혼출산을 보호해야 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라든가, 비혼출산이 늘면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많았다. “제 주변엔 동거 중인 커플이 있어요”라고 말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 다만, 사회적 시선이나 아이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만 몇 명은 비혼출산에 우려를 나타냈다. 2명의 남성은 자신이 현재 동거(따로 같이 사는 LTA(living together apart) 형태) 중임을 밝혔는데, 한 명은 여자친구가 원하면 비혼출산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약속했거나 결혼 날짜를 잡은 경우는 동거가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다. 이렇게 볼 때 동거나 비혼출산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 구성과 출생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¹¹⁾ 이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최근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가족 구성과 출생의 다양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이 판결이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에 국한된 것이지만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1) 법적으로 비혼출산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여성신문』 2024/08/14).

3)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산의 피로감 / 결혼출산 규범의 약화 / 사라진 결혼출산 압력

“남들만큼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 결혼할 엄두가 안나요. 우리 사회가 남 의식하고 비교되고 하니깐요”(20대 중반 미혼 남성)

“결혼하면 ‘가족’이나 ‘시가’에 신경 써야 하니 힘들 거 같아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유교적이고, 그래서 저는 전통적 가족생활 거부해요”(20대 후반 미혼 여성; 40대 비혼 여성)

“기존의 결혼제도, 결혼문화에 거부감 있고요, 그래서 그냥 동거해요.”(40대 비혼 남성)

“결혼 안하고 애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나 주변에 그런 사람 많으니까요.”(40대 비혼 여성)

“요즘 부모들은 자식의 결혼이나 출산을 압박 안하고 못하죠.”(40대 기혼 2 자녀 여성)

2040세대의 결혼 및 출산 규범(fertility norms)이 크게 약화되었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압력도 거의 없어졌음이 드러났다. 기존의 많은 조사에서 ‘결혼해야 한다’, ‘아이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이 매우 낮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높은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한국 사회에서 결혼해 아이 낳고 살기 힘들다는 점에 다수가 동의하거나,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높은 이혼율, 1인 가구의 급증이 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3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10~20대가 18.6%로 가장 높고, 30대와 60대가 각 17.3%로 나타나 2030세대의 1인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나 가족의 개입도 사라지게 되면서 저출생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과거와 달리 당사자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재경 2022; 장경섭 2023).

더 중요한 점은 지금의 2040세대는 거의 모두가 외동이 아니면 2명의 형제자매라 모두가 귀한 개개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딸만 있을 경우도 많아 딸 본인은 물론 부모들도 딸이 남자와 똑같이 성공하고 돈 벌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 여성 인터뷰 참여자를 보면 본인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지만 엄마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결혼이나 출산을 ‘고생길’이라거나 ‘손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남성

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결혼한 친구가 아이가 없으면 나도 안 낳게 되는 등 친구들이나 주변의 분위기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아이 돌봄서비스 부족,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 - ‘둘째 포기 했어요’

“영유아 돌봄도 문제고, 방과 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 뺑뺑이 해요. 초등돌봄이 정말 중요해요”(30대 후반 기혼 2자녀 여성)

“남들만큼 (사)교육 시키고, 좋은 집에서 아이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낳기 어려워요.”(30대 중반 기혼 무자녀 여성)

“아이 키우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육아 비용과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둘째 포기했습니다.”(30대 후반 기혼 1자녀 남성; 30대 중반 기혼 1자녀 여성 외 3인)

유자녀 여성과 남성 모두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과 돌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맞벌이 여성과 남성 모두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무용담’이 많았고, 특히 아이가 아프면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 힘들었다고 한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이러한 문제를 덜 겪는 것으로 보였다. 2명 낳을 생각을 했다가 둘째를 포기한 사람들은 공공 돌봄서비스 부족, 양육의 고됨과 양육시간 부족 문제, 양육·교육비용 문제, 직장에서의 눈치 보임 등 아이 양육의 어려움으로 포기했다고 한다. 여성 입장에서는 아이 키우다 자신의 삶과 경력에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여성들이 결혼이나 아이낳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더라도 얼마든지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전업주부는 아이 양육이 덜 힘들 수 있겠지만 인터뷰 참여자들 거의 모두 맞벌이거나 맞벌이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째 포기는 저출생의 큰 요인으로 보인다. 무자녀를 선택한 사람들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둘째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5) 정부(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와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치라든가,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많아요. 나라를 위해 애 낳을 생각 전혀 없어요. 인구감소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20대 후반 미혼 여성)

“주변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애 낳기 힘들 거 같아요. 육아휴직도 안되고 워라밸이 불가능해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해야 합니다.”(30세 미혼 남성; 30대 중반 미혼 남성)

“나라에서 저출산 정책 돈을 많이 썼다던데 어디에, 어떻게 쓴 건가요? 정부의 부처 신설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사회문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30대 후반 기혼 1자녀 남성; 30대 중반 기혼 무자녀 여성)

오늘날 한국 사회의 특징은 정부(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와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싫어서’와 같은 말이 유행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2자녀 기혼 40대 남성은 사교육 부담에 이민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사회는 흥흥하고 환경 좋지 않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 미혼 남성, 미혼 여성도 있었다. 이민 가는 지인들이 꽤 있다고 말한 공공기관 근무 30대 중반 미혼 남성은 한국의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 환경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 남성은 업무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많이 방문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워라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체 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에 더해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기존 질서와 전통은 무너졌지만 사회적 신뢰와 새로운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가족주의와 각자도생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터뷰 참여자들 중에는 정치(인)나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커져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여야 정치인을 포함한 기득권층의 행태, (사)교육 및 주거문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나 아이를 낳기 어렵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환경문제 등으로 아이를 안 낳거나 인구감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젊은 세대의 해외 이주를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싫어서 떠나겠다는 것은 저출생 현상의 근본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고 하겠다. SNS 등을 통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되는 문화가 싫다는 의견도 많았다.

2. 다양한 범주별 사례 분석

1) 결혼과 아이갓기의 더 큰 경제적 부담 - 저소득·저자산 남성집단

“친구나 주변 보면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남자들 많아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도 높지 않고. 저는 좀 잘되는 가족 자영업(식당)으로 형편이 되니까 후년 결혼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친도 있고요. 아이는 2명 이상 원하고 있습니다.”(20대 후반 미혼 남성)
“주변 보면 애매한 계층, 재산 없고 저소득층은 결혼, 출산하기 어려워요.”(30대 초 대기업 근무 미혼 남성; 30세 지방 공공기관 근무 미혼 남성)

인터뷰 참여자들에 의하면 경제적 요인은 특히 남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결혼비용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고, 이러한 이유로 특히 일부 남성들은 결혼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드러냈다. 더 큰 문제는 결혼 후나 아이를 낳은 후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고민과 우려이다. 심각한 사회적 무한경쟁 속에서 남들만큼 살아야 하고, 남들만큼 아이(사)교육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고용 불안정이나 소득 관련 경제적 불확실성의 문제에 기인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기대수준이 높고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화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소득이 낮은 중하층 이하의 남성들은 돈 때문에 결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2) 2인소득 모델(dual-earner model)의 보편화와 2인돌봄 모델(dual-carer model) 문제 - 맞벌이 집단

“맞벌이라 시간이 너무 없어요. 경기도 사는데 둘 다 직장이 서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 근로 꼭 필요하고요. 원래 2명 낳으려고 했는데 저나 와이프나 너무 힘들어 둘째 포기했습니다.”(30대 후반 1자녀 기혼 남성)
“필리핀 도우미 반대구요, 질 높은 공공돌봄(도우미) 필요합니다. 대기업 다니는데 집이 멀어 시간 자원이 중요한데 애 낳으면 너무나 힘들 거 같아요.”(30대 중반 기혼 무자녀 여성)
“그냥 제 일하고 있고요. 결혼 5년 차인데 아이 생각 없어요. 키울 자신도 없어요.”(30대 중반 기혼 무자녀 여성)

거의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거나 하겠다고 말했다. 2인소득 모델이 일반화된 것이다. 문제는 2인돌봄 모델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다수의 남성 인터뷰 참여자들은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대폭 인상)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일부 여성 및 남성은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제도정착을 위해 단기간이라도)를 주장하기도 했다. 돌봄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1명만 낳은(둘째 포기) 사례들을 볼 때 2인돌봄 모델의 보편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서비스, 키즈카페 등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박혜림 2023)에서와 같이, 거의 모든 여성들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시간 자원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이는 처음부터 '서비스 복지'를 중시해 왔던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최선경 2023).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2인돌봄 모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보육 및 육아휴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다양한 유연 근무가 매우 중요하다. 시간 자원의 부족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이고 다양한 유연 근로도 보장되어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나¹²⁾ 시간제 정규직,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아동병간호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가 있다 해도 장시간 근로와 긴 출퇴근 시간으로 원하는 육아시간을 갖기 어렵다. 야간보육서비스가 가능해도 영유아를 오랜 시간 보육 시설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부모는 가능한 한 아이와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는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아이갓기와 양육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이 출산 및 육아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는 출산율에 도움이 되기 어렵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 도우미'라는 일각의 관점이 보여주듯이 전일제 취업 여성이 원하는 육아 및 가사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고, 비용 측면에서 중산층 이하는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초기 취소

12) 노르웨이는 단체협상을 통해 주 최대 37.5시간이 일반적이며,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주 최대 35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The Local, 9 August 2024).

율이 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인터뷰 참여자들 거의 모두가 맞벌이거나 맞벌이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공보육과 육아휴직, 근로시간 축소 및 다양한 유연 근무로 바람직한 2인돌봄 모델의 정립이 시급하다.

3) 고학력 전문직 / 고임금 여성 집단의 시간 자원과 기회비용 문제

“승진하는 여성들은 거의 다 미혼, 비혼이더라구요 저도 승진하고 싶고 경력 때문에 애 낳을 생각 못하고 있죠.”(대기업 근무 30대 중반 기혼 무자녀 여성)

“결혼하면 커리어 유지 어려워요 만약 아이 낳더라도 경력 위해 육아휴직 조금만 할 생각입니다. 경력 쌓기 위해 해외 대학원 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20대 후반 대기업 근무 미혼 여성)

“저는 제 삶과 제 경력이 매우 중요해요 빨리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되고 성공하고 싶어요 애 낳으면 교수되는 거 어려워질 거라 안 낳고 있어요 남편은 아이 원하지만 제 의견 존중해주고 있어요.”(30대 후반 기혼 무자녀 여성)

“제 일을 하고 싶어 했고 경력 추구하다 보니 당연히 결혼 생각은 안했죠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도 내 경력이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동거든 입양이든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이구요.”(40대 비혼 박사 연구원 2인)

본 조사에서 고학력 및 고임금 여성의 비혼, 무자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 박사과정연구원은 자신의 커리어와 성공을 위해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만 아이를 갖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기혼 무자녀 여성의 “승진하는 여성들은 거의 모두 미혼, 비혼이다”라는 말은 왜 고임금 여성이 비혼이나 무자녀인지 잘 보여준다. 이 여성도 자신의 커리어 때문에 아이를 (아직) 갖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시간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여성·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와 사회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이다. 고임금 여성일수록 업무 부담이 클 것이고 시간의 기회비용이 매우 크기에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고학력, 고임금이 아니더라도 일하는 여성들은 아이 양육의 부담, 특히 시간 부담이 매우 크고, 직장에서 ‘출산 불이익(child penalty)’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 여성은 시간 자원의 부족과 큰 기회비용 때문에 결혼을 안하거나 아이를 안낳게 되는 반면, 박사급의 고학력 여성은 처음부터 비혼을 선택했거나 본인의 경력 중시와 정규직 취업(전임교수직 등)의 문제 등으로 결혼을 우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다니는 역대 연봉의 기혼 1자녀 남성은 아내가 아이 양육을 위해 고액연봉 직장에서 교직으로 이직했고 현재는 장기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남성은 둘째를 포기했는데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아 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리고 유연 근무가 가능해야 고소득 직장인들이 아이 낳고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4) 20대-30대초(A) 집단의 결혼 및 출산 의사 - 더 나이 들면 달라진다? 왜?

“육아 전공이라 아이들 좋아하고 결혼해서 아이 2명 낳을 겁니다. 질 높은 공공돌봄 필요하고 지속적인 육아 지원 중요해요.”(20세 여성 대학생)

“30대 중반에 결혼하고 아이 2명 생각합니다. 여건 되면 전업 육아하고 싶어요. 아이들 자란 후 재취업하구요. 엄마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결혼할 생각이예요.”(21세 여성 대학생)

“결혼할 거고, 아이 1-2명 원합니다. 저는 좀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즐길거리 많고 ‘나혼산’이 유행이라 결혼 안하는 사람 많고, 상대적 박탈감에 결혼 포기도 많은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별 탈 없이 별 어려움이 없이 커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20세 남자 대학생)

“결혼할 생각이고 맞벌이 원하고 아이 2명 이상 원합니다. 가정을 잘 꾸리고 잘 살고 싶어요.”(20대 후반 구직 중인 미혼 남성)

언론에 나오는 여러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본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 초의 A 집단은 B 집단에 비해 미래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와 변화가 객관적인 것인지, 그렇다면 ‘연령효과’인지, 주거비 높고 경쟁이 심한 ‘수도권’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정부 정책 등)’의 문제인지는 불확실하다. 어떤 형태로든 보호자(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큰 20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단순히 ‘젊은 아이들’의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결혼은 해야 한다’, ‘아이는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당연히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상황에 따라 개인의 ‘생각’과 선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그런 자유로운 개인과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모든 조사는 연구자나 설문 대상자들이 ‘정상’ 결혼과 ‘정상’ 출산을 사실상 전제한다고 보여진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생애 전환이 늦어지면서 20대에 결혼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설문 조사들에서도 결혼 의향이나 출산 의향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에 가까우며,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출산 유동층’도 전체 응답자의 44%나 되어, 상황에 따라 태도의 변화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많았고, 결혼 기피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를,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를 꼽았는데¹³⁾, 이는 여성의 관점과 2040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조사의 심층인터뷰를 보면 인터뷰 참여자의 A 집단, 특히, 20대의 경우 자신의 개인적 삶과 성공을 중시하면서도 결혼이나 아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사회(직장)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가, 아이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거나, 실제로 2명 아이를 계획했는데 둘째를 포기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다. 여성은 여전한 전통적인 가사일과 힘든 육아, 출산 불이익 때문에, 남성은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결혼이나 아이 갖기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본 심층인터뷰 결과에서 보여지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태도의 차이와 변화는 결혼·출산 ‘유동층’의 생각과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3) 전국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2023.8) 중, 법적으로 결혼한 성인을 제외한 설문 대상 1,059명의 결혼 의향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19.1%, ‘생각해 본 적 없다’는 4.8%였다. 또한 전국에 거주하는 20~49세 미혼·기혼·유자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미래연구원원의 발표 자료(2024.8.1)에 의하면 출산 의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전체 19.6%였으며, 44%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미혼남녀(1,164명)의 결혼 의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19.4%였다.

IV. 조사 결과와 함의

본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가족 형태 및 출생의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심층인터뷰 조사를 보면 거의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이 동거가족이나 비혼출산에 대해 지지하거나 문제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상’ 결혼, ‘정상’ 출산, ‘정상’ 가족에 부담을 갖고 힘들어하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많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가족 형태와 출생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가족’과 ‘출생’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나 비혼 출산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준다면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게 되고 사회적 다양성과 출생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다른 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 형태 및 출생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제도적·문화적으로 가족 구성과 출생에 매우 관용적이어서 동거출산, 싱글맘 등 혼외(법적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4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다소 보수적인 전통이 살아있어 사회문화적으로 출산규범(fertility norms)이 작동하고 있으며(Ruitenber 2016),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가족 구성이 자유로워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인다. 네덜란드는 1990년대까지 법적 결혼 커플의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80%를 차지했으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등록파트너 제도 도입, 비혼 출산 증가 등으로 2022년 현재 법적 결혼 커플의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2.7%로 축소되었다(김인춘 2023). 혼외 출생아 비중이 60% 중반에 이르는 프랑스는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현금, 서비스, 시간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김은경 2024).

둘째, 여성들이 겪는 ‘출산 패널티’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결혼·출산 패널티 문제는 비혼 및 저출생에 상당한

14)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2024.6.18) [2024 자녀·육아인식조사]에 의하면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의 각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두 질문에 모두 동의하는 사람, 즉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전체의 33%로 가장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인 ‘출산 불이익(child penalty)’이 출산을 하락原因的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만 감소했다.¹⁵⁾ 남성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산이 여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여성이 겪는 큰 출산 불이익은 젠더 임금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가 최근 들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배경에 경력 단절을 우려한 30대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았기 때문이다(문지선·김난주 2023). 즉, 전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30대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미뤄 경력단절을 피하면서 여성의 평균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도 대기업에 다니는 고임금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미루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는 임금격차 해소,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의 선택 등 공정한 노동시장과 유연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저출산 대책임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는 정규 시간제 일자리와 유연 근로를 통해 시간 자원(time resources)을 보장함으로써 출생율을 높이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특유의 파트타임 일자리의 영향으로 스웨덴의 공보육을 통한 여성의 시간 자원 보장과 대비되기도 한다. 다만 스웨덴도 최근 들어 정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연 근로는 노동의 질은 물론 출생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최연혁 2024).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하버드대 골드인(Claudia Goldin) 교수의 연구(2021)에 의하면 미국 고학력 여성의 젠더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이나 최근 미국 대졸 여성의 결혼·출산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각각 여성의 출산 불이익과 유연한 고임금 일자리 증가에 있다고 한다. 무자녀(childless) 여성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공공 아동돌봄과 유연 근무의 부족이 문제로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INED 2017).

셋째, 청년세대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무한경쟁의 완화와 지역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15) 출산 불이익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의 증가는 2013~2019년 출산율 하락原因的 40%가량을 차지했으며,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로 나타났다(조덕상·한정민 2024).

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취약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을 확대시켜 저출생을 심화시키고 있음은 여러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다(이철희 외 2023). 한국은 수도권 인구 비중이 OECD 1위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중요한 점은 수도권 이동이 대부분 청년층 이동 때문이며 수도권 증가인구의 79%가 15~34세라고 한다. 지난 22년간 청년 이동에 따른 '출산 손실'이 약 1만 명으로 추산되기도 했는데 이는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 극심한 사회적 경쟁의 결과라고 한다(정민수 외 2023).

이와 함께 가치관과 문화적 차원의 요인도 큰 것으로 보인다. 본 인터뷰 참여자인 40대 중반 미혼 남성(올 11월 결혼 예정)은 10년 전 경남 지역에서 서울로 왔는데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로 결혼을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다만 서울은 지방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고, 비혼이 많아 만혼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지방으로 재이주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젊은이들은 '성공'이나 '생존'을 위해 오는데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비혼이 많고 주변에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나혼산' 할 수 있는 수도권 생활에 익숙해지게 된다고 한다. 청년세대의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위 인터뷰 사례를 보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지방을 살기 좋게 만들어 청년들이 지방에서 가족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복지국가라는 국토 어디에 살든 모두에게 동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정책이기도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권한을 위한 민주적인 분권과 실질적인 지역발전은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김인춘 2024; Campisi et al. 2023).

한국 청년은 경쟁·불평등·공정에서 높은 사회적 불안을 갖는데 이러한 불안은 청년 전기에서 중기,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수록 더 높아졌다고 한다(곽윤경 2024). 본 인터뷰 참여자들 중 20대의 경우 결혼이나 아이갓기에 다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수의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은 지나친 경쟁과 비교문화가 결혼과 아이갓기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결혼·식·에서부터 아이 교육까지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한경쟁 속에서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불안감을 느끼는 다수의 젊은이들은 정치(인)와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기득권의 불공정에 분노하면서 냉소와 포기해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복지서비스 및 소득 분배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나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대표적인 선진 복지국가들이다. 전후 유럽의 포괄적인 복지국가는 국민과 가정을 돌보는 제도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생망’과 ‘흙수저’, ‘탈조선’ 등과 같은 표현은 단순히 저출생 극복의 차원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우리의 복지 및 분배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공정한 노동시장, 근로시간 축소와 유연 근무, 남성 육아휴직, 여성·아동 친화적인 사회와 문화 등은 여성의 출산 불이익을 크게 감소시켰다. 우리나라 청년층 빈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신용 대출 60%를 20~30대가 차지한다는 사실은 한계 상황에 처한 청년층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조선일보』 2024/07/31). 포괄적인 복지서비스와 공정한 분배정책은 가장 중요한 출산(가족)정책이자¹⁶⁾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국민을 돌보는 일에 미흡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정부와, 심화되는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를 귀결시킨 민주화 시대의 정치와 정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과 사회적 재생산의 부담을 개인과 가정이 지고 오면서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사회가 되었고 사회적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프랑스, 스웨덴 등 출산율이 안정적이고 높은 나라들의 중요한 특징은 ‘출산’이 아닌 개인과 가족을 지원한다는 점이다.¹⁷⁾ 개인의 선택인 출산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출산 지원은 실효성이 없고, 종합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다양한 형태의 출생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가정 양립, 여성의 출산 패널티 축소, 유연 근로, 안정적인 소득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실질적인 분배 확대, 그리고 노동 개혁은 우리의 저출생 문제 뿐 아니라 사회 문제 극복에도 필수적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2040세대 5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및 급변하는

16) 출산율 반등을 설명하는 J 커브(fertility J-curve) 가설의 중요한 주장은 성평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핵심 매개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즉, 높은 성평등 수준과 양호한 경제적 여건은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 반등의 전제조건(prerequisites)이 된다는 것이다(Schubert et al. 2023).

17) 프랑스에 대해서는 김은경(2024) 참고

인구 현상과 관련하여 조사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면서도 저출생 현상에 대한 이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사회 인식과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결혼과 아이 갖기는 매우 개인적인 일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누구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탈권위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2040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은 획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이어야 한다.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한두 가지의 제도를 바꾸거나 경제적 지원을 조금 더 해서는 소용이 없고, 경제구조와 노동·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혁, 각 영역에서의 성평등, 2030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결혼 및 가족 형태와 관련하여 기존의 ‘정상’들을 불편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당장 한 명의 아기라도 더 낳아야 한다며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기는 대책의 무용성과 부적절성을 인식하고, 생명 존중과 함께 ‘여성’과 ‘인구’를 ‘인간’이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심층인터뷰에서 세대갈등이나 청년세대 내부의 분리도 나타났다. ‘왜 청년세대가 당해야 하느냐’, ‘나도 힘들게 고소득자가 되었는데 왜 저소득 청년만 지원하느냐’는 반응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의 근거는 정치와 정부를 믿을 수 없기에 세상이 다 싫다는 것이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데 내가 왜?’라는 반응도 있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전통적 가족주의는 해체되었고 오늘날 2030세대의 탈(정상)가족 지향의 가치관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진정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자유주의 없는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정치적인 것’의 실종에 의한 ‘사회적인 것’의 실종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홍태영 2024). 이는 사회권과 포괄적인 복지국가에 기반한 개인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에 기반한 개인주의와 민주적인 사회공동체가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인구 ‘비상사태’를 끝낼 출생을 회복은 정치와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과 가족을 돌보는, 사회재생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와 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동수, 김미곤, 이소영, 이상림, 이경희, 박미선, 김은지, 이철희, 최은영, 김영철. 2021.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저출산·고령화, 그래도 해법은 있다』.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곽윤경. 2024.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 『보건복지포럼』 7월, 4-18.
- 김은경. 2024. “‘출산’이 아닌 ‘가족’을 지원해야.” 『아시아투데이』 (3월 12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312010006236> (2024/05/22 검색).
- 김인춘. 2023. “네덜란드의 출산율 패러독스와 유연안정성 모델.” 최강식의 편. 『출산(출생)을 하락 시대 출산 결정 및 배경 요인 국제비교연구 - 일본, 대만,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5장.
- _____. 2024. “북유럽 국가 지역정책의 시공간적 발전과 전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33, 1-44.
- 김중순. 2024. 『위낭소리 봉화에서 미시시피 인디언마을까지: 야전 인류학자의 현지조사 이야기』. 서울: 일조각.
- 문지선, 김난주. 2023. “선택 편의 효과로 본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 의미.” 『시민과 세계』 43, 37-112.
- 박혜림. 2023.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TIP* 97, 1-11.
- 이재경. 2022. 『한국 가족: 신가족주의에서 포스트가부장제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철희, 김정호, 이소영, 민규량. 2023.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장경섭. 2023.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개정판)』. 서울: 집문당.
-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 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제2023-29호, 1-36.
- 조덕상, 한정민. 2024.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KDI FOCUS* 132, 1-12.

- 최강식, 김인춘, 최정원, 이소영, 박종서, 고은아. 202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 저출산(생) 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정책자료 2022-05-0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23. 『출산(출생)을 하락 시대 출산 결정 및 배경 요인 국제비교연구 - 일본, 대만,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선경. 2023. “가족 중심, 가족 개개인의 행복권을 우선하는 스웨덴 인구정책.” 최강식 외 편. 『출산(출생)을 하락 시대 출산 결정 및 배경 요인 국제비교연구 - 일본, 대만,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장.
- 최연혁. 2024. “저출산 대책 여야 비교 및 스웨덴의 정책.” 경기복지재단 세미나 발표자료(5월 13일).
- 최종렬, 김성경, 김귀옥, 김은정. 2018. 『질적 연구방법론 - 문화사회학의 관점으로 본』. 서울: 휴머니스트.
- 한국리서치. 2024. “[2024 자녀·육아인식조사] 자녀의 필요성, 결혼과 자녀계획 등.” 『여론 속의 여론』 (6월 18일), <https://hrcopinion.co.kr/archives/30134> (2024/07/03 검색).
- 홍태영. 2024. “민주주의 운동과 사상의 ‘어긋난’ 만남: 1970, 1980, 1991.” 한국정치사상학회·우당이회영교육문화재단 공동주최 한일 국제학술회의 발표문(4월 26일), 137-148.
- “벼랑 끝 몰린 청년층... 최저신용 대출 60%가 20~30대.” 『조선일보』 2024/07/31,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7/31/KQWPGYZ5CFFZ5DCKYBUGUN7Z4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24/08/04 검색).
- ‘비혼 출산’ 막는 산부인과... “정부가 법·제도 마련해야.” 『여성신문』 2024/08/14,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959> (2024/08/17 검색).

영문 자료

- Campisi, Nicholas et al. 2023. “A Spatial Perspective on the Unexpected Nordic Fertility Decline: The Relevance of Economic and Social

- Contexts.” *Applied Spatial Analysis and Policy* 16(1), 1-31.
- Creswell, John W. & Cheryl N. Poth. 202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5th ed)*.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Goldin, Claudia. 2021. *Career & Family: Women’s Century-Long Journey Toward Equ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ED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2017. “Has childlessness peaked in Europe?” *Population & Societies* 540, 1-4.
- Kim, Choong Soon. 1988. *Faithful Endurance: An Ethnography of Korean Family Dispersal*.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_____. 2000. *One Anthropologist, Two Worlds: Three Decades of Reflexive Fieldwork in North America and Asia*.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Ruitenbergh, Justine. 2016. “Resilience of the Childhood Origins of Dutch Mothers’ Gender Role Attitude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3, 11-26.
- Schubert, Henrik-Alexander et al. 2023. “Revisiting the J-shape. Human Development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MPIDR Working Paper WP 2023-022,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Plans for 35-hour workweek unveiled by Sweden's Social Democrats.” *The Local*, 9 August 2024, <https://www.thelocal.se/20240809/plans-for-35-hour-workweek-unveiled-by-swedens-social-democrats> (accessed 22 August 2024).

Abstract

Results and Implications of an In-depth Interview Survey to Understand the Low Fertility Rate in S. Korea - Focusing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hoon Kim ■ Yonsei University

Choong Soon Kim ■ Yonsei Univ. & The Univ. of Tennessee

Jeong Won Choi ■ Yonsei University

Various factors and contexts of the low fertility rate in S. Korea, the lowest fertility rat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have very historical, cultur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deep roots and broad fundamental backgrounds of the low fertility rate. Accordingly, this study has focused o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low fertility rate culturally, socially, and psychologicall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50 women and men in their 20s to 40s living and work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common shared narratives and discourses are 1)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freedom and personal life - preference for a free life, 2) support and high acceptance of cohabiting families and non-marital childbirth - the need to protect diversity in birth and family, 3) fatigue from the legacy of traditional family/weakening of marriage and childbirth norms/disappearance of social pressure for marriage and childbirth, 4) shortage of high-quality childcare services, high costs of (private) education and housing, 5) low trust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and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etc. We also attempted case analyses by various categories, such as the low-income/low-asset male group, dual-earner group, highly educated professional and high-income female group, and the 20s group'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In addition to socio-economic factors, this paper, which is described and analyzed based on primary data from the in-depth interviews,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understand low fertility rate and to suggest policy

reforms through qualitative interpretation of various cultural and socio-psychological factors.

Key Words: Low Fertility Rate, In-depth Interview, Qualitative Research, Seoul Metropolitan Area, 2040 Generation, Marriage, Family

부록 - 인터뷰 참여자 자료

(본 자료는 심층 인터뷰 전체의 일부 주요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향후 다른 형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성 (27명)

번호	연령	혼인 여부	자녀수	직업	특기 사항/ 요구 사항
1	30대 초			지방 공무원	비혼주의, 무자녀주의 - 이는 시간적 여유 좁 성장별/사회구조적 문제 커. 청소년기 지원필요 돈, 집 없어 결혼/아이 못 갖는다고 생각해
2	40대	○	2	지방 공무원	현금지원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도움 됨 다양한 출생 적극 지원해야
3	20대 후			복지관 직원	소극적 비혼, 무자녀주의 - 결혼출산은 여성 손해 성장별 여건, 본인케어 중시, 인구감소 ok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로 (노동시간 단축)
4	35세	○	1	복지관 직원	둘째 포기, 일양육 힘들어, 돌봄서비스 강화되어야 시간 및 경제적 여건되면 3명도 낳고 싶어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유연근로 조기퇴근
5	30대 후	○	2	육아 중	10개월아이(둘째) 양육후 취업생각 보육 및 초등돌봄 절대 필요 다양한 가족/출생 제도적 보호해야
6	40대	○	2	재취업 준비 중	아이 5세까지 직장다니, 보육초등돌봄 절대필요 젊은세대 주거지원 필요, 사회적 양극화 심각 젊은세대 개인주의 강해
7	30대 후	○	2	전업주부	출산 전까지 직장다니 양육 교육비 지원 더해야
8	40대	○	1	프리자 영업	난임으로 둘째 포기. 미혼도 입양할 수 있어야 여성 경제활동 중요, 2030세대 간섭 싫어해 여성의 기회비용, 육아비용 큼 - 비혼, 무자녀
9	20대 후			중소기업 직원	일반직원, 결혼 및 아이 1명 이상 계획 양질의 보육돌봄서비스, 유연근로 절대 필요 동거출산 비혼출산 ok
10	40대	○		IT 중소기업	적극적 무자녀주의, 여유있고 자유로운 생활 만족 경제적 부담, 일육아 어렵고, 양육교육비, 커리어 중시로 기혼 무자녀 선택 초등까지 장기간 돌봄 필요, 유연근로 중요
11	30대 중	○	1	대학원생 박사	직장 다니다 대학원 진학 후 출산 육아 너무 힘들고 본인경력 중시 둘째 포기 공보육 중요, 유연근로 중요

12	25세			대학원생	소극적 비혼, 결혼은 여성에 큰 부담 결혼은 경제 여건되면 할 수 있지만 출산은 그 이상의 문제임 - 아이 갖기 어려워. 출산용어 거부감
13	40대			전문직 연구원	적극적 비혼주의, 동거 비혼출산 ok 개인의 선택 본인 페미니스트 아니고 보수적이지만 비혼주의자 단순한 안정된 삶 선호 - 본인의 취향으로 비혼
14	40대	o	2	중소 일반직원	대학생 아들 2명 있고 둘 다 결혼 안한다고 해 개인생활, 취미 즐기고 자유롭게 살고파서 아들들의 결혼, 출산은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 동거출산 비혼출산 ok, 아들도 이혼도 ok
15	30대 중	o		대기업	본인경력 위해 임신미뤄, 1명 생각중, 시간자원 중요 애 낳으면 힘들어. 승진여성들 거의 비미혼임 양질의 공공돌봄(도우미) 필요, 외국인도우미 반대 소득 높지만 자산 적어, 소득기준으로 혜택 못받아 중상소득층 지원하면 아이 더 낳을 것 동거비혼출산 ok
16	20대 후			대기업	소극적 비혼, 결혼하면 커리어 유지 어려워 전통적 가족생활 거부, 결혼하더라도 무자녀 위해 한국사회 여전히 유교적, 남 신경쓰고 비교, 체면 만약 출산해도 경력 위해 육아휴직 조금만할 것 유연근로 중요, 본인 회사는 유연근로 가능 한국 사회 여전히 성차별. 동거 비혼출산 ok,
17	20대 후			대학원생	결혼할 생각이고 아이 2명 생각 본인 경력위해 육아도우미 활용계획, 유급근로 중요 자신은 개인주의적이지만 가정 행복도 위해 우리나라 성차별 존재해. 동거 비혼출산 ok
18	40대			대학강사	소극적 비혼, 자신은 결혼해 살기 어렵다 생각함 한국사회 여전히 권위주의적, 전통주의적 가족구성, 출생이 너무나 경직적, 남 의식 비교 과도한 경쟁사회, 아이 낳기 어려워
19	30대 중	o		연구원박사과정	본인경력 중시, 현생활 만족, 출산 미루는 중 남편 아이 원하지만 와이프 의사 존중 본인의 성취성공 위해 무자녀, 애 낳으면 어려워 정부의 부처신설 답아님, 전반적인 사회환경이 문제
20	20세			대학생	육아전공, 결혼할거고 2명 생각 양질의 공공돌봄, 지속적인 육아 지원 중요 2030 혼자 삶, 자기계발 중시, 동거비혼출산 ok
21	20세			대학생	30대 되어야 결혼 고민할 듯, 아이는 글썽 취업, 경력 중시해야. 사촌언니 30대 3명 미비혼 부모들 압박 없어

22	21세			대학생	30대중반 결혼생각, 2자녀 생각, 여건되면 전업육아 엄마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심
23	35세			중소 사무직	9월 결혼, 아이 1-2명 계획, 부부 육아휴직 계획 맞벌이 소득으로 정부지원 제대로 못받아
24	41세			연구 전문직	고학력 전문직으로 자신의 일 경력 성공 중시 40대되면서 결혼 생각도 있으나 꼭 해야지는 아님 난자냉동은 이미 늦음
25	40대 중			연구 전문직	비혼주의 아니나 그동안 결혼 생각 안함 자신의 일 커리어 중시해 왔고 앞으로도 일 중시 결혼 생각도 있으나, 결혼하든 안하든 입양 고려중
26	36세	o		출판사 근무	결혼 5년차 무자녀. 아이생각 없고 키울 자신 없어 자신의 삶과 즐거움 우선해 아이 없는 친구들 많고, 주변 출산 압력 없어
27	46세	o		대기업 근무	44세 결혼한 결혼 3년차 만혼으로 아이 생각없고 자유롭게 즐기며 살 것

남성 (23명)

번호	연령	혼인 여부	자녀수	직업	특기 사항
1	30대중	o	1	지방 공무원	부부공무원이라 육아휴직 용이, 둘째 계획 지원금 많아지면 셋째도 고려할 수 있어 지자체지원 체감못해. 기업은 남성육휴어려워 동거 적극 찬성, 비혼출산은 사회적으로 어려움
2	30대초			복지관 직원	35세 전에 결혼하고 싶고 아이도 2명 원해 주거 등 경제문제 부담, sns비교 결혼에 걸림돌 동거ok, 비혼출산 반대
3	20대후			구직중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중, 맞벌이 원해 결혼할 생각이고 아이 2명 이상 원해 동거 비혼출산 ok, 인식 바뀌고 있어
4	30대후			중소 컨설팅	결혼생각 있지만 결혼제도에 부담, 아이2명 원해 한국 사회 갈등적이고 관용성 낮아 기업문화 중요, 육아휴직 등 기업입장 고려해야 sns로 비교와 박탈감. 비혼출산동거출산 적극찬 성
5	30대초			중소 컨설팅	영상편집개발자, 적극적 비혼주의 결혼문화, 결혼제도 거부 여친과 동거중(LAT), 여친 원하면 출산 가능
6	40대			IT 중소기업	적극적 비혼주의, 결혼제도 거부, 자유로운 삶 중시, 여친과 동거중(LAT), 개인의 자유 중요, 비혼출산 ok

7	40대	o	2	IT 중소기업	부인 교직이라 시간가능, 돌보미지원 혜택받아 양육과 교육 국가가 많이 지원해줘야, 사교육 부담 이민고려중, 비혼출산ok, 새로운가족형태 많아 질것
8	30대후	o	1	IT 중소기업	경제적 문제와 육아 어려움으로 둘째 포기 육아휴직시 소득 줄어 힘들어 자산없는데 맞벌이라 정부 지원 못받아 억울
9	30대후	o	2	대학강사	맞벌이, 구청 돌봄서비스 도움 + 아빠 육아 전담 어린이집 이용, 기업이 제도 못따라가 비혼출산 ok, 지나친 경쟁사회 문제
10	30대후			대학강사	비혼주의는 아니지만 결혼 망설여 sns 영향의 사회적 분위기가 저출산에 영향 정부의 장기적 지원 필요
11	30대후	o	1	전문 연구원	맞벌이. 육아 힘들어 둘째 포기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소아과 대기 - 인프라 문제 주변 동거커플들(LTA)있어. 결혼 기피, 자유로 운 삶 원하는 사람들 많아
12	30대후	o		대기업	맞벌이. 부인의 경력단절 우려에 애 안낳아 와이프 여건되면 아이 2명 원해 돈 지원보다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로(주 4일제보다) 양질의 어린이집 중요 중하소득층은 정부 지원 많으면 애 낳을 듯 동거, 비혼출산 ok, 성소수자도 개인의 자유임
13	30대후	o	1	대기업	맞벌이(부인휴직중), 고소득이지만 부부 삶과 1 명 잘 키우기 위해 둘째 포기. 와이프 출산 후 장기육휴 위해 교사로 전직. 육휴급여 대폭 올려 야 고소득들 아이낳고 육휴할 것. 유연근로 육아 도움 커 한국사회 너무 비교되고, 이분법, 다양성 부족해 정부예산 너무 비효율적, 저소득층 지원 집중은 문제임
14	30대중			공무원	결혼할 계획이고 아이 2명 생각, 맞벌이할 것 혼자 할 것들 너무 많아, 자신에 투자 - 출산 미 루거나 꺼려. 이민 가는 지인들 꽤 있어 남성육휴 의무화해야, 보육인프라, 유연근로 중요 특히 중소기업 위라벨 불가능, 중기 육휴 중요 동거, 비혼출산 ok, 혼외출생 지원해야
15	30대초			대기업	적극적 결혼, 2 자녀 원해 비혼무자녀 미디어역할도 있지만 변화된 세대 반영, 미래 안보이고, 본인 개인 삶 더 중시 2030 정부신뢰 낮아 - 출생율에 영향,

				세금 더 안내려해 기대수준높아. 양극화와 애매한계층 결혼출산 못해
16	20대중		지방 공공기관	30대중반 결혼생각. 아이1명, 경제적 이유로 2 명 불가. 한국서 아이 키우기어려워. 어린이집 중요 맞벌이할 거고, 남성육아휴직 의무화해야 2030 개인적 삶 즐겨 - 만혼 무자녀 사회분위기
17	30세		지방 공공기관	적극적 결혼 30대 중반에, 아이 2명 위해 맞벌이해야하고 중견중소기업 육아휴직 100%해야 돈보다 시간, 유연근로 등 근무여건 가장 중요 한국사회 흥흥하고 환경 안좋아, 아이에게 물려 주고 싶지않아. 동거 ok, 동거출산비혼출산 본인 선택 2030 본인 삶 중시, 경제적 이유 저출산 큰 원인
18	30대 초		출판단체 직원	내년이나 후년 결혼, 2자녀 계획, 맞벌이할거임 인천시 1억지원 20년간이라 좀 애매. 정부지원 저소득층 중심이라 중간직장인들 어려움 육아휴직, 유연근로, 대체인력 등 기업문화 바 뀌어야.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동거 비혼 출산 ok
19	20대후		가족식당 운영	후년 결혼날 잡아, 3자녀계획 식당잘되고 별 경제적문제 없어. 가정육아 계획 친구들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결혼 못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 좋으나 본인 상황 좋아져야 결혼 출산 가능해
20	20세		대학생	결혼 할 것, 아이 1-2명, 맞벌이 위해 2030 즐길거리,할거많아 비혼, 개인행복, '나혼산' sns 보고 자괴감, 배폐의식 - 결혼 포기 고용 등 청년지원 많이 해야 저출생 극복
21	39세		준공공기 관행정직	'나혼산' 적극 즐기는 사례, 결혼 필요성 못느끼 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안가져 (무자녀주의)
22	40대중		준공공기 관행정직	일자리, 주거 등 경제적인 이유로 그동안 결혼못함 11월 결혼, 본집과 와이프는 부산에, 주말부부 10년 전 서울 음, 부산경남권에 취업(이직)하게 되면 부산에서 살 계획
23	37세		예술분야 전문직	혼자만의 단순한 개인적 삶 좋아. 인구위기 관 심 없어, 여러 일 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 없고 비혼주의 아니지만 연애, 결혼 필요성 못 느껴